

제 193 호

연중 제 18 주일

1976. 8. 1.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상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 감론 ●



예수님은 생명의 빵

범 선 배 신부

지금 막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41회 국제 성체 대회 (8월 1일~8일)가 열리려한다. 이 대회의 기념 메달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말을 넣은 대회 상징 마아크가 새겨져 있다. (경향잡지 1976년 8월호 38면 참조)

그런데 마침 우리가 오늘 미사에서 들은 복음의 끝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요한 6, 35)하는 말이다.

요한 복음 6장—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두 주일이나 더 묵상을 계속할 복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바로 이런 기회에 생명의 빵인 성체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성체에 대한 우리의 신심을 불리일으키고 또 깊게 하는데에 크게 유익할 것이다.

성체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에서 말하는 것 몇가지만 들어 보자.

"성체의 빵을 떼어 먹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고 또 우리끼리도 결합된다." (교회 헌장 7항)

"믿는 이들에게 희망의 보증과 노자로 주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성사인 성체성사" (사목헌장 38항 참조)

"신교 활동 전체의 원천이요 정점인 성체 성사" (사제 직무 교령 5항, 교회 헌장 11항 참조)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는, 성체 성사 거행에 그 원천과 중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건설할 수 없다." (사제 직무 교령 6항)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우리에게 성체가 바로 이렇게—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이며 원천이고 정점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에 생명을 주는 빵으로—실제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성서에 나오는 멋있는 말로나 혹은 교리 시간이나 강론에서 가끔 듣는 말만으로 끝나는가?

만일 성체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고 싶느냐는 말을 분명히 들게될 것이다. (요한 6, 66-67)

또 미사에 참여한다면서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사의 완전한 참여가 되기 어려우며 미사 구경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의 식탁에 와서 구경만하고 가지 않으려면, 또 신앙 생활에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는 모두 합당한 준비를 하여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가?
(대야 천주교회 주임신부)

❖ 시대의 징표 ❖



불타는 지구(地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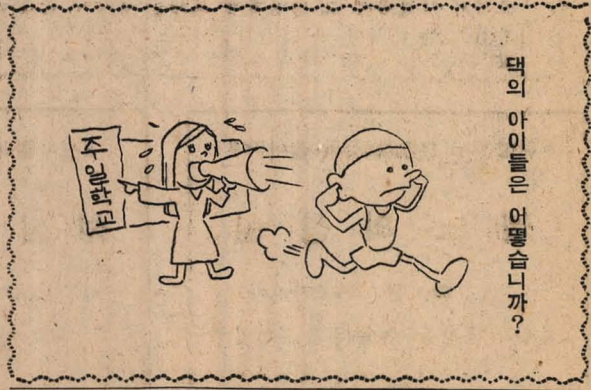
비가 오지 않는다. 아무리 무덥고 긴 여름이라지만 비가 와야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목을 축일텐데... 길다랗게 늘어진 양동이를, 물지게를 지고 뛰는 야낙네를, 땀내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 더위에 목욕 한번 제대로 못해 어쩔겨나고 호소하는 할머니의 목선 소리들이 우리를 더욱 더울게 한다.

어떤 신문은 "유럽" 쪽 쓰는 「불벌 煉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여러 나라에서 절수령(節水令)을 내리고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기우제(祈雨祭)가 한창이라고 전한다. 영국에서 250년만에 당하는 불벌이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의 벨호얀스크 지방의 온도가 무려 섭씨 35도까지 올라가는 난리. 소련과 일본에 밀어닥친 북중국파(伏中寒波)의異常氣溫은 公害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해설하고 있다.

현대문명은 공해를 낳고, 공해는 이상 기온을 낳고, 이상기온은 흉작(饑饉)을 낳아 우리를 못 살게 한다. 현대문명은 바이킹1호를 화성에 보내서 생물의 존재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하고, 고장난 바이킹호를 지상에서 컴퓨터로 수리할 정도로 무섭게 발전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병충해들은 해마다 더 득해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현대에 와서 인간은 특히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그 지배권을 거의 자연계 전체에 확장했고 또 계속 확장하고 있다. ...전 인류에게 퍼져가는 이 거대한 노력 앞에 인간들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인간 활동의 의의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개인적 내지 사회적 노력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 (사목헌장 No.33)

숲 정 이 산책



덕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3.1 사건 공판 방청기(10)

김 영 신 신부

3.1사건 재판에 대한 방청기를 쓰면서 항상 마음이 석연치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

구속 내지 불구속된 성직자, 교수, 민주인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받아서도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이 민족사를 직시하고, 현실보다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판단을 내려 행동한 처사에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쁘게 나날을 보내는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풍조 가운데 살아야 하는 숨통이 막히는 현실문제의 소산들이다.

이 소산물을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분명히 해소하지 않고는, 이번 사건의 재판이 끝나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항상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때문이다.

제11회 공판에서는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검찰은 각종 인쇄물 및 제보자 등과, 이를 증거토록 문공부,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 장관들의 회보를 제출했고, 각종 인쇄물 확인 및 보충신문이 있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증인을 신청했다. 책임자로 있던 전 국무총리

김종필씨, 우리나라 헌법의 초안자로 현 유신헌법과 차이점을 알기위해 유진오 박사, 그리고 현 유신헌법이 독재체제인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박일경 교수, 신앙의 자유가 무엇이고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김관석 목사와 지학순 주교 은명기 목사, 언론이 탄압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관우씨와 김정준씨, 경제부문에 대해 조화순씨의 2명, 차관과 노동법에 관하여 몇분, 외교면에 대하여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등.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신청을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김대중씨는 박정희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의 제지 발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방청객 및 김대중씨의 반박으로 큰 소리가까지 나왔었다.

재판장의 휴정선언후 속개된 재판장에서 법정직권으로 금지하 시인과 박정희 대통령은 증인제한을 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검찰이 증인으로 요청한 김택암 신부와 양홍신부는 보류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모두를 보류했다. 다만 주석균 노동문제 연구소장과 조동필 교수(경제학 전공)를 증인으로 하겠다는 선언으로 오늘 공판은 끝났다.

공정한 재판이 될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교구 판리국장 신부)

10원의 위력

정 주 복 (아오스당)

서울에 갔다가 전주에 오려고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차표를 끊어가지고 막 돌아서려는데 “10원이 모자라는데 전주에 가는 표 좀 안돼요?”하는 소리가 들린다. 바라보니 옷 모양이 초라한 20여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다. 매표원은 눈 하나 깜짝 할 이가 없다. 220원을 주고 은하수 한갑을 사고 거슬러 받은 돈 230원 중에서 270원을 차비에 보태니 호주머니에 달랑 10원이 남았다.

“여기 10원 있으”하고 10원을 내 주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음식점에 들렀다가 지갑을 빠트리고 와서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었던 일이 생각한다. 마침 제자가 들어와서 “여보게, 나 지금 난처한 입장이나 돈 좀 있으면 빌려주게, 자세한 얘길랑 나중에 들려줄게” 귀속말로 얼버무리고 돈을 빌려 위기(?)를 모면했다.

어찌 하필이면 10원이 모자랄까?..... 궁금했다. 전주에와 차에서 내려 어두운 밤 길을 터벅 터벅 걸어오는데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 청년이 따라오면서 극진히 인사를 한다. 민망했다. 걸인도 잘 받으려 하지 않는 10원. 집에서 꼬라들에게 주면 “헤이!”하고 아파의 내민손을 봐서 받아준다는 그 10원, 그런데 그 10원이 그리도 고마울까!

오히려 이련에서 그 청년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하찮게 없는 10원이 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으니, 가치면으로 본다면 0을 서너개 붙여도 모자랄것 같다. 앞으로는 10원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두운 밤길을 재촉했다. (全州海星高教師)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준자(로스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로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4544

교우 여러분들을 특별 우대함

농약, 씨앗, 농기구

고농농약사

전주시 천동 1가 303의 7

집전화 4740번

박태수 (벨라도)

□ 전국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

성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북 지구 발족>

이 영 희(다투)

지난 1976년 5월 1일 성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 한국연합회의 정식 승인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교구내 성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 전라북도 지부를 결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본당에 형제회가 조직되어 나름대로 운영하였으나만 지도부족으로 많은 형제회가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5개 형제회는 성실히 운영 발전하여 형제회 도지부를 결성하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 하는 바입니다.

성프란치스코 수도회는 1223년 9월 27일 아씨의 프란치스코에 의하여 창립된 수도단체입니다. 성프란치스코 수도회는 3가지로 구분되어 제1회는 성프란치스코 성직자(신부, 수사)들로 구성된 수도회(프네루알회)이고, 제2회는 성프란치스코 수도회 수녀들로 구성된 수도회(글라라회)이고, 제3회는 평신도인 우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인 우리는 성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이 되어 하느님의 부르심(성소)에 한결음 더 가까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속형제회(제3회)의 특징은 평신도로서 사회생활 중에서 각자의 신분과 직위에 적응하여 보다 완전하게 하느님을 섬기고, 복음적 생활을 보다 충실하게 하므로써 완덕에 도달코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화와 사랑에 넘친 봉사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형제애로 단결하여 평신도 사도직에 앞장서서 복음전파의 십자군이 되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일할 것입니다.

본 전북지부 재속 형제회의 발족과 더불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유서 깊은 전주 전동성당에서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라는 주제로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국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회는 사부(師父)이신 성프란치스코 750주기가 되는 뜻깊은 대회이기도 하며, 전국에서 400여명의 형제회 형제 자매들이 참석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 전주교구내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성프란치스코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기 진심으로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발족을 본 전북지부 재속형제회에서 전국대회 행사를 치루기에는 힘이 너무 벅차오나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협조와 열성어린 기도가 있을줄 알고 이 행사를 성공리에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속형제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활동성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성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를 조직코저 하면 지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기도와 사랑은 형제들의 복음적 열성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형제회가 조직된 본당

전동(서학동 교우도 참여), 중앙(덕진·북자 교우도 참여), 노송동, 창인동, 주현동 (全羅北道 支部 總務)

요십이 (157)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고버)

☆교형 여러분의 집☆

한국(流)온수온돌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3가 26~17번지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⑤ 2143
전주 연락서 주원배(설배들)

◎언제나 찾아 주세요.

★교우 여러분께 특별환인 우대★

혹·칼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③ 5 2 8 9
김금순(테레사)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온돌 공사

(본사지영 호남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동암(모이세)

금암동 ⑤5614 군산 3032
다가동 ⑤4342 부안 736
전동 ⑤2143 정읍 2157

☆각 지방 자점 구합 (계약금 없음)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씨관집

◎교우들에게 특별 영가 봉사◎

최병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⑤ 6691(교황85번)
自宅 ⑤ 5418

☆이(齒牙)는 오복(五福)의 요건 ☆

수석(水石) 치과의원

원장 김현(아오스님)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전화 ⑤ 1 6 6 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 1. 전주교구 중·고등 학생회 하기 수련회(8월 2-5일, 진안 상전)
 - 안내-진안에서 안천 경유 무주행 버스(8km) 수동리 하차 상전 국민학교 뒤
-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8월 2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 보좌 신부 한 불 섭
 사 도 회 장 김 병 상
 회 장 이 환 용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미사 시간 안내: 아침 5시반-6시 저녁 8시반-8시
 - 3. 중·고등 학생 하기 피정: 2일(월)-5일(목)
 - ※ 좋은 피정을!
 - 4. 성심 부녀회: 6일(금) 어머니 미사후
 - 5. 방직거 심회: 오늘 오후 2시
 - 6. 독서실 책 대금 미납자: 속히 납부 바람.
- ※ 주일학교 여름 특별 교리와 성심 부녀회 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 임 신부 김 종 길
 사 도 회 장 사 회 장 조 성 호

- 1. 교우 회합 더위로 인하여 당분간 쉽니다.
-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 임원과 반장님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3.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9일~14일까지 <매일 오전 9시~11시까지> ◎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의를 바랍니다.
- 4. 교우금을 속히 안납하여 분당 운영에 협조 합니다.
- 5. 분당 개수 및 도장 공사에 적극 협조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성의껏 신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 임 신부 공 아 열
 사 도 회 장 사 회 장 조 해 형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2. 성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8월 15일 정기총회 준비 회의를 겸하오니 전회원은 참석 바랍니다.
- 3. 8월 5일(목) 오후 8시-성시간: 많은 참석 바람.
- 4. ◎ 성모 동소승천 대축일 앞두고 특별 고백 성사
 - ① 기간-8월 11일~12일까지 (2일간), ② 시간-오후 3시~5시, 저녁 8시~9시.
 - ◎ 각 공소 신자들에게 성사 및 미사 집전
 - 황윤라 공소-1일(일) 오후 3시, 왕정리 공소-2일(월) 오후 7시, 다리리 공소-8일(일) 오후 3시
 - 신월리 공소-9일(월) 오후 7시.

(서학동)

전화 ②2276 주 임 신부 오 열 택
 사 도 회 장 사 회 장 박 장 춘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 새로 임명된 반장님의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 2. 초·중·고등학생 하기 교리 실시: 국민학생 <9일~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중·고등 학생 <9일~14일까지, 오후 4시부터> ◎ 교형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합니다.
- 3. 반 회합: 3일<1반(구 1.2반)>, 4일<2반(구 3.4반)> 5일<3반(구 5반)>, 6일<4반(구 7.8반)>
- 4. 신용협동조합 사무실 이전 개업-8일(주일) 공식 미사후 ◎ 전 조합원은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②2182 주 임 신부 박 종 근
 사 도 회 장 사 회 장 김 용 환

- 1. 사도회 확대회의: 공식 미사후 ◎ 사도회 임원, 공소 회장단, 구역회장, 각 반장님 전원 참석 바람.
- 2. 하계 어린이 특별 교리 첫 영성제: 9일~14일(오전 9시~12시까지) ◎ 어린이들은 많이 참석 하세요!
- 3. 학생과 청년 하계 수련 등반: 목적지-지리산, 뱀사골, 노고단, 화엄사, 출발시간-오전 8시까지 분당 집결
- 4. 성당 건립성금 신입: 김은식(5만원), 좌요곤(5만원), 두께 1,000,000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5. 신용협동조합 임원회: 2일 12시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전동)

전화 ②3222 주 임 신부 김 함 철
 보좌 신부 문 규 현
 사 도 회 장 사 회 장 양 윤 모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 2. 성화회, 어린이 영성식: 오늘 10시 미사후
- 3. 장우회 야외행사: 봉동 강가이
- 4. 예비자 승전 영세자: 매일 밤 8시 15분
- 5. 주일학교 방학교리: 8월 9일~15일까지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교역수신태음	사도회 월례회	5,70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동	대의원회	53,535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22,040원			초·중·고등학생 하계 특별 교리 사도회, 성모회, 청년회	50,185원 8,950원
제 2 지구	야동울명중합	불우 이웃돕기 <감사합니다> 안나회	20,490원	제 4 지구	중 앙 노송동 더북서학동 전	사도회 월례회	90,231원
		예비자 집중교리 사도회 성심회 사도회 월례회 하기 아동 성경 학교 유아 세례식	6,390원 56,885원 30,370원 20,600원 17,930원			성모회 월례회 사도회 확대회의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성화회	32,155원 20,340원 26,415원 19,877원 96,145원
제 3 지구	고금여산	여름 성경학교 개학 상임 위원회 월례회	4,370원 17,010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성시간 안내 사도회 월례회 공소대항 배구대회(15일) 데레사회	13,480원 6,020원 8,540원 15,210원
		자모회 월례회	17,915원			사도회 월례회	8,255원